표현 역량 갖춘 글쓰기 인재 양성

전북교육청, 고교생 45명 대상 글쓰기 워크숍 비대면 진행… 오늘까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 2일까지 고등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글쓰기 워크숍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만인 저자의 시대,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한 글쓰기'를 주제로 고등학생들에게 자아 성찰 및 정체성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ZOOM을 이용한 실시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지난달 30일 1강에서는 카피라이터 서미현 강사와 함께 책, 광고, 에세이, SNS까지 창의적으로 일상을 쓰는 '날마다 쓰기'를 소개했다.

1일 2강에서는 구성작가 양희 강사가 다큐멘터리적 글쓰기를 위한 '다큐로 세상 읽기'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2일 3강에서는 '너도 작가가 될 수 있어'의 저자 이동영 강사가 자기소개서 등 시험에 통하는 글 쓰는 법 '합격을 부르는 글쓰기'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강의 중 댓글쓰기 등 실시간 쌍방향 소통과 함께 강의별로 사전에 제출한 과제 첨삭 및 활동 결과 피드백 등이 이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글쓰기를 통해 원활한 소통과 공감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깊이 있는 사유와 표현 역량을 갖춘 글쓰기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대학원 양지영(박사과정), 이정우(석사과정) 학생이 최근 '2020 한국지역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전북대 양지영·이정우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새만금 간척지역 박물관 유물수집과정 논문 호평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대학원 양지영(박사과정), 이정우(석사과정) 학생이 최근 열린 '2020 한국지역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디지털 뉴노멀시대의 지역사회혁신과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전남대와 부경대, 원광대에서 웨비나(Webina) 방식을 겸한 형태로 동시 개최됐다.

우수논문상을 받은 전북대 학생들은 '새만금 간척지역 박물관 유물수집과정을 통해 본 지역사회의 참여와 상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사회의 혁신 및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준비한 논문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또 고고문화인류학과 4단계 BK21 '문화·문명의 연구와 활용을 통한 인류세 지역위기극복 교육연구단(Expert-RACC, 단장 이정덕 교수)'의 장학 지원을 받으며 문화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학문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이정우 학생은 "이번 대회 성과를 통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 할 수 있는 학문연구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다양한 디지털 활용은 지역 사회 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를 주최한 한국지역사회학회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종합과학적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및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1980년대에 조직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전자공학부 배윤재 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서 '장관상'

전북대학교 배윤재 학생(전자공학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최한 '정보통신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정보통신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것으로, 총 214점의 제안서가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최종 9점이 선정됐다.

배윤재 학생은 이동통신 무선국과 우량경보 무선국 데이터를 활용한 '비 피해를 줄여요!'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아이디어는 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배윤재 학생은 "올 여름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 이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됐다"며 "첫 공모전에 좋은 아이디어를 완성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도움을 준 정용채 교수님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북대 전자공학부는 실무역량 인증제, 대학혁신지원사업(시스템트랙),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등에서 다수의 특강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핵심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난 1일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된 전라북도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34표 중 21표를 획득한 이병하 후보가 최동열 후보를 8표 차로 이기고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북태권도협회장에 이병하 후보 당선

제22대 전북태권도협회장에 이병하 후보가 당선됐다.

1일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된 전라북도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34표 중 21표를 획득한 이병하 후보가 최동열 후보를 8표 차로 이기고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병하 당선인은 "전라북도 태권도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태권도인의 위상과 자긍심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도자와 우수선수 처우개선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등록도장 활성화 방안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침체된 엘리트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병하 당선인은 제10대 전주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전북체육회 이사 및 감사, 전주시태권도협회 회장, 전라북도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 전무이사, 총무 등을 역임했다.

전라북도태권도협회장 선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치러졌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통합도서관 장기미이용 회원정보 정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교육문화회관 및 도서관(18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기간 이용을 하지 않은 회원정보를 정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리대상은 장기간 교육문화회관과 도서관에서 대출 또는 이용 실적이 없는 회원이다. 이후 회원정보가 삭제된 경우 기존 회원증으로 도서 대출 등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도서관 회원 자격의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20일까지 가까운 교육문화회관과 도서관을 방문해 대출을 하거나 통합도서관 누리집 회원가입(본인인증)을 통해 회원정보를 갱신하면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회원 정보 정리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고,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도서관 회원정보 정리 내용은 누리집 안내 등 홍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교육청(063-239-34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용역근로자 136명 정규직 전환 '따뜻한 동행'

2018년 118명 · 2019년 2명 · 2020년 16명으로 마무리

전북대학교가 대학의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모두 마무리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2018년 청소용역 근로자 118명을 국립대 최초로 정규직 전환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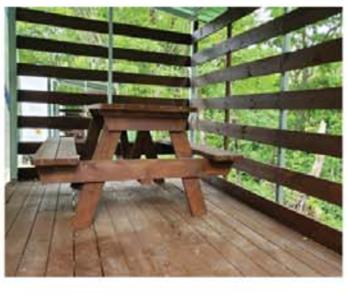
이듬해 시설관리용역(기계·난방) 2명을 전환했으며, 2020년 5월 경비용역 11명, 12월 1일자로 시설관리용역 전기·소방 분야 근로자 5명을 정규직으로 임용했다.

전북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발맞춰 2017년 8월부터 정규직 전환 TF팀,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등을 구성,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왔다.

김동원 총장은 "대학은 용역근로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근로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전북대의 한가족으로서 따뜻한 동행을 위해 처우 개선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